

연극의
역사와
스타일

김남석

연극과 인간

머리말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연극의 역사’를 다루었다. 이 부분에서는 연극이 어떻게 기원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전개되었으며, 현재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서 연행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스 연극부터 시작하여 로마와 중세 시대를 거쳐, 셰익스피어 시대·고전주의·낭만주의·사실주의·표현주의·서사극·부조리극에 이르는 연극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이때 규준이 된 것은 ‘스타일(style)’이었다.

4장부터 9장까지는 ‘연극의 스타일’을 다루었다. 여기서 ‘스타일’이란 ‘연극 양식’ 혹은 ‘공연 사조’를 가리킨다. 어느 시대이나 연극은 존재했지만, 그 존재 방식이 동일한 적은 없었다.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 양식이 별도로 존재했고,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셰익스피어 양식이 나름대로 존재했다. 시대 별, 개인 별로 형성된 양식이 쌓이고 포개지고 겹쳐져서 현대의 연극이 탄생했다.

연극에서 양식은 곧 ‘시대인의 개성’이고 ‘창작자의 시각’이며 ‘관람자의 독법’이다. 시대마다, 그 시대 나름대로의 개성이 존재했었다. 그 개성은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연원했고, ‘희곡을 보고’ ‘연극을 읽는’ 독법으로 수렴되었다. 사실주의에는 사실(reality)을 신봉하

던 시대의 놀라운 감식안이 담겨 있고, 표현주의에는 욕망과 본능을 강조하던 시대의 새로움이 담겨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조리극에는 인식적 혼란을 경험한 시대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연극 양식은 그 시대의 반영이고, 그 시대의 작가 의식이며, 그 시대의 작가 의식이 투영된 예술인 셈이다. 4장에서 9장까지는 가급적 구체적인 작품을 실제로 들어, 다양한 양식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내가 읽고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때로는 상상하고 추정한 지식의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완전히 새롭거나 전적으로 독창적이지만은 않다. 나는 선학들의 연구 결과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학문적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참조하여, 하나의 단선적인 지면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고자 했다. 세익스피어처럼 이 안에 담긴 모든 것은 선학들과 동료들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그것들을 수용·정리·배열·집필한 것은 나의 선택이자 의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나타난 모든 잘못된 견해와 미흡한 결론은 필자인 나의 잘못임을 밝혀둔다.

말없이 내 곁에 서 있는 삶을 선택해 준 ‘나의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녀는 그 어떤 책보다 나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 깊은 영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이 책을 드립니다.

2010년 10월 20일

김남석

차례

1장 연극의 기원과 그리스 연극

1. 연극의 기원과 제의설	9
2. 그리스 비극과 <오이디푸스>	11
3. 세 명의 극작가와 연극 경연대회	15
4. 연극의 요소들과 그 표현 방식	24

2장 암흑기를 지나 셰익스피어 연극으로

1. 로마의 연극	31
2. 연극을 금지한 중세 시대	33
3. 입장료를 내기 시작한 연극	37
4. 셰익스피어의 삶과 연극	38
5. 셰익스피어 연극의 미학	44

3장 이성과 감정의 교차 혹은 조화

1. 규범의 연극 고전주의 양식	53
2.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체를 그리고자 했던 사실주의	62
3. 서사극(Epic Theater) 이론의 정립과 그 양식적 특징	70
4. 낯선 언어와 낯선 인식의 연극 부조리극	77

4장**리얼리즘 연극의 구조와 특징**

1. 리얼리즘(사실주의)의 생성과 도입 그리고 변화 발전	85
2. 리얼리즘 연극의 최초의 완성과 연극의 도입부 : 유치진 <토막>의 도입부에 나타나는 정보 제공 방식	87
3. 리얼리즘 연극의 효과적인 전개와 플롯의 발전부 : 천승세 <만선>의 위기의 시작	96
4. 리얼리즘 연극의 일차적 완성과 연극의 결말부 : 함세덕 <동승>의 여운의 의미	107
5. 리얼리즘 연극의 형식과 이해	122

5장**인물과 플롯의 상관성**

1. 서사극의 수용과 변화	127
2. <쥬라기 사람들>의 창작 과정과 초연의 진통 그리고 희곡적 특징	138
3. 인물과 사건의 추동력으로서의 갈등 : 이강백 <쥬라기 사람들>에서 갈등의 양상	143

6장**전통의 수용과 현대화**

1. <오구>를 만들기까지 : 이윤택의 목소리로	169
2. 소리 없이 표현되는 일상 저 너머의 세계 (1장 : '어머니의 꿈 속 풍경')	184
3. 재치 있는 대화로 전개되는 만담 (2장 : '어머니와 아들')	190
4. 무대와 객석, 연극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한 판의 궂 (3장 : '굿판')	192
5. 죽음에 대한 의식 (4장 : '염')	196
6. 웃음과 성욕이 어우러진 난장판 (5장 : '초상집')	199
7. 죽음에 대한 희화화 혹은 친밀감 (6장 : '저승사자')	203
8. 산 자를 위한 연극 (7장 : '산 자를 위하여')	209

7장 동시대 연극의 공연 기법

1. 서사적 화자의 기용과 시공간의 자유 이동	215
2. 자전거에 축적되는 역사적 상처와 윤서기와 구서기의 역할 변화	223
3. 전체 서사의 요약·역전·반복 그리고 서사의 빈 틈	235
4. 회상의 끝에서 만난 잊고 싶은 기억	244

8장 희극의 구조와 미학

1. 연극의 형식적 분류와 희극의 특성	251
2. ‘신체 결함’을 이용한 웃음 유발	253
3. 언어유희를 이용한 웃음 유발	257
4. 계략 무산을 통해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	260
5. 권선징악으로 나타나는 해피엔딩	265

9장 비극의 구조와 미학

1. 비극의 종류와 한국적 비극	273
2. 죽은 공주와 산 왕자의 만남 그리고 이별	276
3. 죽은 낙랑의 언니 왕비와의 만남과 잉태되는 자책감	284
4. 불륜과 근친상간의 위반	288
5. 희생제의의 등장과 희생양 의식	295
6. 희생양의 처벌과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결말	301

김남석

1973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1992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뒤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9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 「여자들이 스러지는 자리—윤대녕 론」이 당선되어 문학평론가가 되었고, 대학원에서는 드라마(연극)를 전공하여 2000년 「오태석 희곡의 개방성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1960~70년대 문예영화 시나리오의 영상 미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시절부터 틈틈이 쓰던 연극평론으로 연극평론가가 되었고, 2007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영화평론 「경박한 관객들—홍상수 영화를 대하는 관객의 시선들」이 당선되어 영화평론가가 되었다. 연구서로 『오태석 연극의 미학적 지평』·『오태석 연극의 역사적 사유』·『기억된 미래』·『한국의 연출가들』·『한국 문예영화 이야기』·『한국영화의 미학과 경계』·『조선의 여배우들』·『조선의 대중극단들』을 발간했고, 문학평론집 『비평의 교향악』·『마음의 생태학』·『어려운 시들』을 발간했으며, 『이윤택 공연대본전집』(전10권)과 대담집 『난세를 가로질러 가다』와 연구서 『이윤택 연극의 미학적 시원』을 출간했다. 2006년부터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 살면서 연극과 영화 그리고 문학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연극의 역사와 스타일

초판 1쇄 인쇄 2010년 12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20일
지은이 김남석 펴낸이 박성복 펴낸곳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등록번호 제6-0480호 등록일 2000. 2. 7.
주소 142-879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252-9
대표전화 (02) 912-5000 팩스 (02) 900-5036
homepage <http://www.worin.net>
배포처 도서출판 월인(912-5000)

ISBN 978-89-5786-365-7 93680

값 15,000원

- 지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